

금강 세종보 수력발전소 가동

금강 세종보 수력발전소가 8월31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.

K-water(한국수자원공사)는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세종보 건설 현장에서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시공·감리사, 공사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<세종보 수력발전 개시 기념식>을 열었다.



K-water 김건호 사장은 “전국 16개 보 수력발전소 가운데 최초로 세종보 수력발전소를 가동하게 돼 기쁘다”며 “세종보가 가동되면서 국가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송기섭 차장은 “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세종보 수력발전소는 발전용량 770kW 3기로 구성돼 하루 2310kW, 연간 1200만kWh로 인구 1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.

4대강 나머지 15개 보 수력발전소도 2011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총 발전용량 5만756kW, 연간 2억71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.

<화학저널 2011/09/01>